

“온 바다를 담고, 온 미래를 열다”, 최첨단 해양조사선과 함께하는 해양조사의 날

- 국립해양조사원, 6월 19일 부산 북항서 제6회 해양조사의 날 기념식 개최
- 4천 톤급 최첨단 해양조사선 ‘온바다호’ 취항 및 대국민 공개행사도 열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정규삼)은 6월 19일(금) 부산항만공사 연안 유람선 부두에서 ‘제6회 해양조사의 날 기념식’과 최첨단 해양조사선 ‘온바다호’ 취항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조사의 날(매년 6월 21일)’은 해양 관할권 확보와 항해 안전 등에 필수적인 해양조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21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다.

올해 해양조사의 날 기념식은 “온 바다를 담고, 온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열리며, 해양수산 관련 기관장, 해양조사 관련 종사자 및 단체, 해양조사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그간 해양조사 발전과 해양조사선 건조에 기여한 유공자 15명에게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30년간 조사를 수행해 온 ‘해양 2000호’를 대신해, 새롭게 해양조사를 이끌 4,000톤급 친환경 하이브리드(전기+디젤) 조사선 ‘온바다호’가 정식 취항한다. 제19회 부산항 축제와 연계하여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대국민 선박 공개 행사에서도 온바다호를 만나볼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온바다호에 승선하여 최첨단 해양조사선 내부를 직접 살펴볼 수 있을 예정이다.

정규삼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이번에 취항하는 ‘온바다호’는 최첨단 친환경 하이브리드 조사선으로 대한민국 해양조사 역량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가 해양조사의 가치를 되새기고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국립해양조사원 운영지원과	책임자	과 장	차성신 (051-400-4101)
		담당자	서기관	한정식 (051-400-4120)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책임자	과 장	이재영 (051-773-5350)
		담당자	사무관	김태현 (051-773-5353)

참고 1 제6회 해양조사의 날 기념 및 온바다호 취항식



참고 2 온바다호 제원

□ 온바다호 전경



□ 주요제원

구 분	친환경 하이브리드 해양조사선(온바다호)
톤수/치수	3,966톤 / 길이(95.3) × 폭(15.6) × 깊이(8.40) × 흘수(4.50)
추진방식	2기 2축(CPP), 추진모터/축발전기, 선수·미 횡추진기
주요기관	주기관 1,740kW(900RPM)×2대 / 주발전기관 565kW×3대
항해속력	12노트(85% MCR) / 최대 15노트(100% MCR)
항속거리	14,000해리(45일)
승선인원	50명(선박직원 29명 / 조사자 등 21명)